

# 친환경 선박 생태계 선점

군산시·전북도, 친환경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 선정

군산시는 전북도와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플랫폼 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기술선도형 분야 공모에 선정되는 폐거를 이뤄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년까지 5년 동안 국비 100억 등 총 170억의 예산을 확보해 오식도동(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전북본부 인근에 LPG, 암모니아, 바이오디젤, 하이브리드와 같은 저탄소·무탄소 대체연료 추진 시스템 핵심 기자재 성능 검증을 위한 육상기반 실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지난 2018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해운분야에서 선박배출 온실가스를 2050년 까지 2018년 대비 70%(30.7만톤) 감축해야 한다.

현재 국가적으로 LNG기술을 보유했으나, 저탄소 대체연료 선박 관련 연구개발은 초기단계로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실증 플랫폼 선점을 통해 지역 조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총 197억원의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 2020년 말 국가산업단지 내 오

식도동에 중소형선박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를 건립해 선박 기관부의 보조기계 분야, 의장부의 항해 기기/화재 및 안전설비 분야의 17 가지 기자재의 품질 고도화를 위한 시험·연구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번 선정된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연료 핵심기술 및 핵심 기자재 시험평가를 위한 장비를 완성하게 되어 구축 장비 연계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선도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는 익산의 맛 홍보를 위해 지역 대표 음식점 일리기에 나선다.

## 대표메뉴 실린 '배너' 제작

익산시, 향토음식점 선정·홍보

익산시는 익산의 맛 홍보를 위해 지역 대표 음식점 일리기에 나선다.

시는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7개소의 향토음식점을 선정하고 홍보 효과에 탁월한 현관과 배너를 제작해 식당에 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배너에는 먹을직스러운 음식사진과 함께 향토 음식 소개, 대표메뉴가 실려 있어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향토음식점을 대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역의 농·축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을 발굴·보전하고 계승을 위해 향토음식점 7개소, 향토음식 시범 업소 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향토음식을 통한 음식문화 계승발전과 관광

지원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시의 대표음식점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도 추진 중에 있다.

서미역 위생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방문객들에게 일품의 맛으로 손님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서비스와 위생, 친절도 항상을 통한 업소 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향토음식점은 △마포미륵산순두부(순두부찌개·금미역), △부부카페(순두부찌개·금미역), △흥가든허브오리(오리찰흙구이·오산면), △웅포식당(우어회·옹포면), △진미식당(육회비빔밥·횡등면), △한일식당(횡등면우육회비빔밥·횡등면), △산촌가든(마미돌볶음탕·영등동)이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중앙약국, 군산시 삼학동

'착한가게' 협판 전달

군산시 삼학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회 신명옥)가 중앙약국을 방문해 '착한가게' 협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약국은 이번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매월 수의의 일정액을 기부하게 되며 모금된 금액은 복지사각지대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23일 이현옥 대표는 "약국 운영을 하면서 아프고 힘든 분들을 많이 만나 있었고 주위에 힘들게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돋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나눔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신명옥 민간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따뜻한 마음으로 착한가게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전국지방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군산시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가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선거인은 22만4,926(20일 기준) 명으로 군산시 인구의 84.99%에 해당하며, 읍면동 별 선거인이 많은 곳은 수송동이 4만 2,293명, 적은 곳은 해신동이 2,024명으로 확정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오는 27일과 28일 27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오는 6월 1일 85개 투표소에서 본투표를 실시한다. 또 질병의 격리의무기간 확대(6.20.)에 따라 일반유권자와 별도로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29일자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인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도 투표시간을 확정해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 '공급'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친환경농산물·로컬기공식품 검사 등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

익산시가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공급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운영과 식재료 검사 등록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달부터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생산·공급과정을 학부모들이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모니터링단은 4명씩 2개조로 편성되며 다음달부터 12회에 걸쳐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기공식품 공급업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직접 방문해 품질관리, 위생관리, 안전성 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감시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말부터 2회에 걸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실시해 모두 8명의 학부모를 선정했다.

이어 친환경농산물과 로컬기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항목을 확대한다.

시는 식재료에 대한 진류농약 검사와 방사능검사, GMO검사를 연간 300여건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잔류농약 검사 항목은 320종에서 463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즉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통보하여 해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지역화폐 연계한 '다이로움 택시 앱' 출시

익산시가 시민들을 위한 지역 맞춤형 택시호출앱 '다이로움 택시'를 출시한다.

시는 6월 2일부터 지역화폐 다이로움과 연계한 택시 호출앱인 '다이로움 택시'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이로움 택시는 이용·호출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택시 기사들에게도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친환경 소비입니다.

다이로움 택시 앱 설치 쿠폰 코드 입력, 친구 초대 시 마일리지 혜택이



제공되며, 자동결제 이용 시 2%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특히 지역화폐 다이로움과 연계해 택시 요금 결제 시에 폐이백 10%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용히 가고 싶어요, 내비게

이션 안내에 따라 이동해주세요' 등 택시 기사에게 요청 사항을 미리 전달하는 승객 선호 옵션 기능을 제공하며, 택시 친절서비스 평가하기 기능도 도입한다. 시는 이번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대기업 플랫폼의 택시 호출 시장 점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화폐 연동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이용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익산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저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중으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2억5,000여만원을 투입해 유증기 회수설비를 조기 설치하는 주유소 가운데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1,000㎥ 미만인 곳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등에 따른 대기질 개선과 의무설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영세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익산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2018년 기준 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호스와 노즐 어댑터와 제어 관련 장치 등으로 토목·배관공사비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증기 회수시설은 한국환

경공단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등에 따른 대기질 개선과 의무설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영세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익산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관내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

/익산=이재춘 기자



#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